

2026년 5월 20일(수)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른아침예배

인도 : 황효립 목사

- 1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 2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렘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 3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 4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뵈을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엿이 바로 서리라
- 후렴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488장 다 같 이
 기 도 이인호1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신명기 27:1~8 인 도 자
 찬 양 하나님의 인도하심 새벽찬양대
 설 교 『선명히 세기고 굳게 결단하라』 황효립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218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218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 1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 2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진실한 맘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 3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 오늘의 말씀 <신명기 27:1~8>

- 1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 2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 3 요단을 건너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 4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 5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 6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 7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 8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기도담당

5/19(화)	5/20(수)	5/21(목)	5/22(금)	5/23(토)	5/25(월)
박경원2 안수집사	이인호1 안수집사	황영태 재적안수집사	이종덕2 안수집사	한상철3 재적안수집사	유창호 안수집사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6년 5월 20일(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밤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세기게 하시고, 항상 주께서 행하신 은혜를 밝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굳게 결단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새문안교회 위에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새문안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땅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모든 교역자와 선교사에게도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돌보아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문안교회의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여, 140주년에는 온전히 헌당을 이루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늘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신음하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남북의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